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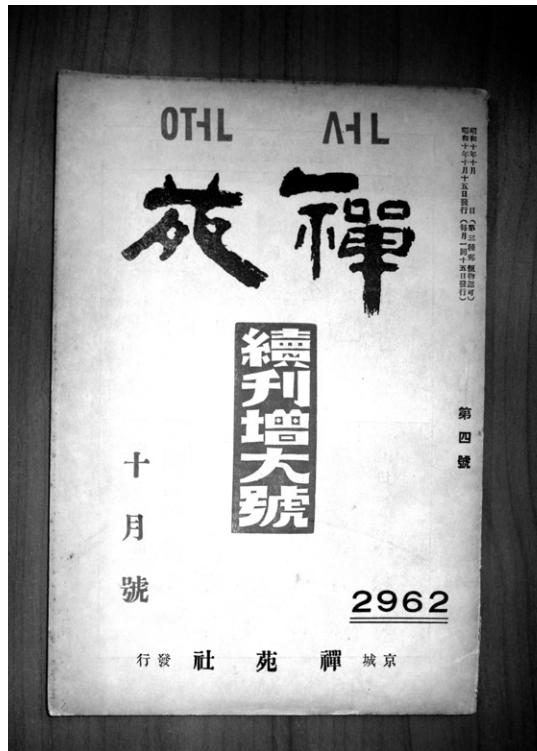
② 1931년 선학원의 재건과 선의 대중화 (2)

‘禪苑’ 창간 문서포교... 시대 앞선 불교지

〈선원(禪苑)〉지는 선학원의 기관지이면서 대중지이다. 1931년 10월 6일 창간해서 현재 통권 208호에 이르고 있다. 선학원의 설립정신이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침체된 선의 중흥과 대중화에 있었다면 〈선원〉지의 성격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불교는 신령스러우면서 깨닫고, 고요하면서 비추는 일물(一物)을 가르쳐서 혹은 불(佛)이라 하고 혹은 여래(如來)라 이르며, 선종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혹은 일영(一靈)의 진성(眞性)이라하고 혹은 열반(涅槃)의 묘심(妙心)이라하는 바 선학의 공부로써 이 한 물건을 발견하고 포착(捕捉)하는 미묘한 이치가 지극히 간단하고 쉽고, 지극히 밝고 명료하여 곧바로 믿고 깨달으면 본래 성불(本來成佛)이다. 그러나 이런 이치(理趣)를 입으로 말하지 않고 붓으로 써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본래부터 문자에 서툰 선학의 수자(修者)라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침묵하고 지저기만 할 때가 아니라 서 본지를 세상에 보내게 된 것이다.

1931년 〈선원〉지의 창간사다. 선학이 훌륭하고 미묘한 이치가 많지만,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일물(一物)'을 입과 붓으로 보이기 위해 〈선원〉지를 세



1935년 선학원에서 간행한 〈선원〉지 4호(사진 왼쪽 위)와 2013년 6월 간행된 〈선원〉지(사진 왼쪽 아래). 선학원(사진 오른쪽)의 기관지인 〈선원〉지는 민족불교 중흥과 선 대중화라는 초기 설립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1935년 선학원에서 간행한 〈선원〉지 4호(사진 왼쪽 위)와 2013년 6월 간행된 〈선원〉지(사진 왼쪽 아래). 선학원(사진 오른쪽)의 기관지인 〈선원〉지는 민족불교 중흥과 선 대중화라는 초기 설립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풍고는 선수행의 당위성과 같은 원론적인 글을 통해 선의 중흥을 모색했다.

〈선원〉지는 이밖에 선사상과 중국선종사, 불교교리와 함께 시와 소설을 망라한 불교문학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1931년 재건 직후 선학원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선학원일기초요(禪學院日記抄要)’를 통해서 1931년 침체를 딛고 일어난 재건기의 활기찬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법회와 스님들의 치열한 선 수행, 부인선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신도들의 수행과 포교활동을 전하기도 하였다.

‘지방선원소식(地方禪院消息)’이나 ‘조선불교계의 선원과 납자(納子)수의 통계’는 1921년 선학원의 설립이후 그 관심과 지원으로 침체된 선원이 부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여건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해를 거듭할수록 선원과 수행납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선원〉지 4호는 1934년 선학원이 재단법인의 인가를 받아 조선불교선리중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수록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선원을 전국 선원의 모본선원으로 지정한 점이나 선종중앙종무원(禪宗中央宗務院)·재

일제 심전개발운동 등 비판 제시
민족불교 전통성 수호·중흥 도모
1930년대 치열한 수행현장 담야
선학원 역사 기록 역할도

단법인(財團法人)·조선불교중앙부인선원(朝鮮佛敎中央婦人禪院) 등 산하기관의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결국 선학원의 〈선원〉지 창간은 한국근현대불교사에서 몇 가지 지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선학원이 표방했던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당시 불교계에서 간행된 대부분의 간행물이 너도나도 불교개혁과 같은 시류를 부르짖을 때 본분사에 충실했고 구현하고자 진력한 것이다. 당시의 시선으로는 시대를 거슬러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둘째, 선의 대중화에 앞장선 점이다. 이른바 주지전행, 외색불교 기원의 영향으로 선반의 수좌들은 소위 밥값 못하는 부류로 인식되었고, 선원은 황폐화되어갔다. 〈선원〉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선이 지닌 가치와 실질적 효능을 대중들에게 소개하여 당시 한국불교가 지닌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고자 진력하였다. 특히 맹목적인 기복신앙(祈福信仰)에 젖어 있던 신도들은 선(禪)을 통해 불교와 수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도 〈선원〉지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의연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면을 통해 그 성숙과 발전을 기원한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선학원, 1931년 〈선원〉 창간
한국 禪 가치 재조명... 의미 커
수좌 배척 상황 극복 노력
맹신적 기복신앙에 경종 울려

상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당시 선 수행을 비롯한 선학의 침체를 대중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선원(禪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홀대하고, 대처풍조의 만연으로 독신수좌들을 배척하는 당시 불교계의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창동안 과학만능을 부르짖는 것이 높아 다윈의 진화론(進化論)을 말하지 않으면 해세할 수가 없고 막스의 유물론(唯物論)을 입에 걸지 않으면 사람노릇을 못하는 것같이 떠들더니 이제는 그런 시대가 벌써 지나가고 말았다. ... 유물 만으로만 살 수 없음을 각성(覺醒)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유물주의에만 항상 걸려있을 것인가. 그렇게 철저히 굳은 것처럼 사납게 날뛰는 주의 자들도 이제는 대부분 사상전환기에 들어서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인생다운 사람의 길을 밟으려고 한다.

〈선원〉지 4호(1935)에 실린 김태흠(金泰愼)의 글이다. 진화론과 유물론이 유행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한 불교개혁론과 유신론이 불교계를 휩쓸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났고 오히려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불교계의 변질, 새로운 사조(思潮)의 수용, 전통불교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질주하고 있었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사실 당시 불교계는 이전의 탄압과 소외

에 대한 분골이라든 하는 듯 '개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대신 정체성이라는 본분사와 부처의 공수를 부수는 핵심은 놓쳐버린 것이다. 쪽정이들만 반짝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선원〉지의 창간은 결국 선학원의 설립목적에 구현할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불교계가 맞이하고 있었던 혼란과 위기를 지적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선방에서의 수행이 주지가 되기 위한 위조증명서 한 장으로 대체되었던 선에 대한 경시풍조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김태흠은 〈선원〉지를 통해 '심즉시불(心即是佛)'·'선(禪)의 인생관'과 같은 선에 대한 기초적인 논설을 썼지만, 당시 심전개발운동(心開發運動)에 대한 비판적인 글도 소개하였다. 예컨대 그는 〈선원〉4호에 소개한 '심전개발과 선의 대중화'라는 글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달

한영(朴漢永)은 권상로·한용운과 함께 당시 불교개혁론의 대표 인물이었지만, 불교가 지닌 근본정신의 진면목을 기초로 시대변천과 문명사조의 세례를 유의해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른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백용성 역시 8편의 글을 실었는데, 화두의 개념과 참구의 방법을 소개했으며 〈선문염송(禪門拈頌)〉을 중심으로 한 화두품이에 대한 강좌(講話)였다. 선의 중흥을 위한 대중화를 염두한 글이었다.

한편 김태흠은 〈선원〉지를 통해 '심즉시불(心即是佛)'·'선(禪)의 인생관'과 같은 선에 대한 기초적인 논설을 썼지만, 당시 심전개발운동(心開發運動)에 대한 비판적인 글도 소개하였다. 예컨대 그는 〈선원〉4호에 소개한 '심전개발과 선의 대중화'라는 글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달

성하고자 한 목적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정책에 순응하게 하고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량한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드는데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 불자는 무엇보다도 해탈의 경계를 얻어 대중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먼저 참선이 필요하다. ...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일을 하려면 먼저 선을 연구해야 할 것이요, 선을 연구한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할 급무(急務)이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이상엔 능히 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참된 사람이라 한다.

위의 글은 풍고(風廓)라는 필명을 지닌 이의 글이다. 김태흠이 당시 불교계가 맞이하고 있었던 모순과 침체를 시대상황을 기초로 비판적인 글을 썼다면

입 증 안내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淨衆宗 : 깨끗한 무리의 중생들이 불국정토를 염원하는 종단

불법에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불교 정중종 입증을 발원합니다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총무원

총무원장 진여 법만 합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100 (중화동 274-63) 전화 02)433-6591~2 /팩스 02)433-6508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소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향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 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기적을 일으켜 주고있는”

생전예수재기도

이 기도가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7일 마다 한번씩 20분정도 집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준비 되어있는 기도문 내용을 방편 앞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생전예수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로서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 (1)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불치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 (3)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주 막히고 진행이 잘안된다.
- (4)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5) 결혼후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 (6)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 (7) 취업이 잘 안되고, 되어도 좋은 직장이 안된다.
- (8) 무수 시험이든 운이 약하게 작용하여 합격이 어렵다.
- (9)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 안된다.
- (10) 직장에서의 승진이 어렵다.
- (11) 앞으로 남은 생의 삶은 정말 새롭게 잘 살아 보고싶다.
- (12)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필히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본 회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책자를 신청하여 읽어 보신 후 마음이 닿으시어 기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 보시고 신도들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면 별도로 전화 주십시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